

강진군, 4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강진군은 지난 6일 대전시 호텔 ICC에서 열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수상과 부상으로 8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2018~2021)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최초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이 되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최우수상 이상 수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강진산단 100% 분양·가동률 제고 등 높은 점수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최우선 역점 시책 쾌거"

▲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 목표 달성도 ▲ 일자리 공시제 및 사업 실적 등 엄격한 심사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하였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산단 100% 분양 및 가동률 제고,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 연계, 온라인 직거래 화훼 판매시스템 구축, 여성 일자리 확대, 청년단체 구성 등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민선7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결과 전국 군 단위 최초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찾아오고 싶은 강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진군은 부상으로 받은 8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신규 일자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준비 착착 산림청장 현장 점검 실시...난대숲 자원에 감탄

완도군은 지난 2일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하여 윤재갑 국회의원, 최병암 산림청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등 20여 명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완도수목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완도수목원을 들어 설 때부터 병풍처럼 펼쳐진 난대숲 자원에 매우 감탄했다"면서 "이러한 산림 자산을 전 국민이 하루 빨리 향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준비와 연구 등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완도수목원에 약 1,9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날 산림청은 2022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전라남도도와 완도군은 현장 설명 후 수목원의 주 관람객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관람 편의를 위해 산악열차 개설 등을 건의했다. 산악열차 개설은 전남도와 군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비교·분석 결과 모노레일보다는 산악열차가 기존의 완도수목원 임도를 따라 조성 가능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은 85만 명에 달하고, 1조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천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우리군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여 미래 관광, 힐링의 중심지 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해남군-원광전력(주), 장학사업 업무협약

지역·업체 상생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



마뽕피낭시에, 쭈다복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해남군이 미래 지역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에 관해 업체뿐 아니라 향우, 공직자 등 다양한 군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해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전연수 원광전력(주) 대표이사께 감사드리며, 지역업체와 우리교육이 함께 상생·발전하게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연수 원광전력(주)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뜻깊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화답했다. 원광전력(주)는 1988년 창립하여 전기·소방·통신 등 공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 제조업과 에너지 설비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을 선도하는 지역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과 원광전력(주)은 명현관 해남군수, 전연수 원광전력(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기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전력(주)은 에너지 관련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매년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하고 군은 원광전력(주)의 이미지마케팅을 위한 홍보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탁은 올해부터이며 협약 기간은 별도 협약 해지 시까지 지속된다. 이번 협약은 원광전력(주)의 전연수 대표이사가 군 장학사업기금으로의 기탁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되었으며 관내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장학사업기금 기탁은 4est수목원, 해남고구



진도군, 응급 복구 체제 전환 집중 호우 피해 수습에 총력

침수 농경지·도로 시설물 등 신속 대처 주민 불편 최소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진도군이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섰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평균 474mm의 많은 비가 내린 진도군은 농경지 피해가 잇따르자 이동진 군수가 6개 읍면을 찾아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를 위해 공무원 일제 마을 출장 등을 통해 읍·면 피해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

는 등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315가구의 주택 침수와 5,149ha의 농경지 침수, 육상 양식시설 22개소의 수산피해, 하천 제방 유실과 국도 18호선 의신면 정용재 등 7개소의 도로 법면이 유실, 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도로에 토사 유출로 인한 통행 제한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가드레일·도로법면과 하천유실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시설물 정비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백신 1차 접종자도 경로식당 이용 하세요" 강진군, 관내 경로당·경로식당 이용대상자 확대

강진군은 7월 1일부터 관내 경로당 및 경로식당 이용 대상자 범위를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2차 완료자만 경로당·경로식당을 이용토록 제한했으나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개편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1차 완료 후 14일 경과자에 대한

식당도 허용한다. 7월 7일 현재 관내 경로식당 이용률이 84.5%에서 100%로 증가했다. 이승욱 군수는 "아직도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식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1차 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들 모두 마을경로당이나 경로식당에 모여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